

黃順元 장편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실존주의 문학적 성격

장 양 수*

차 례

I. 序論	III. 神도 인간도 없는 荒涼한 세상
II. 實存的 근본경험 - 不安과 自己破綻	IV. 結論

I. 序論

1930년 약관 17세의 나이에 시 <나의 꿈>을 『東光』에 발표함으로써 문인으로 데뷔한 黃順元은 한동안 詩作에 몰두하고 있다가 1937년 『創作』 제3집에 단편 <거리의 副詞>를 발표하면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10년 뒤인 1947년 <별과 같이 살다>를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장편소설을 썼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초기의, 단편소설에 집중되어 비평가들은 <별> <소나기> <닭祭> 등 주로 사춘기 소년 소녀가 죽음과 性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미와 추에서 경험하는 충격을 그려 보여주는 이른바 入社式談(이니시에이션 스토리)의 성격에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던 것이 장르가 장편 쪽으로 이행되면서 그의 작품은 성인세계의 갈등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과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급변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그러한 장편소설 중 한 편이다. 1960년 1월에서 7월까지 『思想界』에 연재 발표된 이 소설은 黃順元의 장편작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한 편으로 1961년 예술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이 소설은 1980년 장왕록이 <Trees on the Cliff>이란 제명으로 영역, 미국 Lanchwood사에 의해 출판되어 국외 독자에게도 소개되는 등 그의 대표작 중 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장편소설들은 자연주의적 현실에 깊이 뿌리를 둔 實存主義的 경향을 띤 작품세계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¹⁾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그의 대표적인 實存主義 소설이다.²⁾ 그런데 한국의 實存主義小說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黃順元의 작품은 비교적 소홀하게 대접받아 왔다. 이보영은 70년대 평론가들이 한국의 實存主義 소설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용학·손창섭·서기원·이범선의 몇몇 작품들만 거론하고 黃順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한 바 있다.³⁾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필자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實存主義小說의 성격을 집중 탐구해 보기로 했다. 이 논문은 주로 사회윤리주의 비평의 방법론에 의지해 썼다.

II. 實存的 근본 경험 - 不安과 自己破綻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6·25사변의 종전 무렵에서부터 휴전 직후 몇 년간이다. 이 소설의 다음과 같은, 전장의 한 장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띤 것이다.

이건 마치 두꺼운 유릿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로군. 문득 동호는 생각했다. 산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 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1)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顯現)」, 『黃順元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68쪽.

2) 이보영, 「작가로서의 황순원」, 『黃順元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294쪽.

3) *Ibid.*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그 속에 초가집 일여덟 채가 무거운 지붕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전혀 변화를 안 입어 보이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생물이란 곧 무엇 하나 살아 있지 않는 성실하게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이 고요하고 거침새 없이 투명한 공간이 왜 이다지도 숨막히게 앞을 막아서는 것일까. 정말 이건 두껍디 두꺼운 유릿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느낌인데. 다시 한 번 동호는 생각했다. 부리를 앞으로 향한 총을 꼭 옆구리에 끼고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그 거창한 우리는 꼭 동호 자신의 순간순간 짓는 몸 자체만큼씩만 겨우 자리를 내어줄 뿐, 한결같이 몸에 밀착된 위치에서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절로 동호는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위의 인용문은 동호가 전우들과 함께 한 마을을 수색하면서 느낀 것을 서술한 것이다. 문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장에서 느끼는 한 사병의 공포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호가 느끼는 것은 공포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불안이다. 공포는 인간이 세계 안의 사물, 곧 어떤 대상에게서 느끼는 것이나 불안은 無對象性의 것이다.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 자아존재의 결합적 상태에 불안을 느낀다. 實存主義에 있어서 불안의 「불안스러운」 감정은 회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머물러야 하는, 나 자신과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불안은 인간의 「實存的 근본 경험」으로 그것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이 기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창조적인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그 존재성의 허무가 드러나기도 한다. 인간은 전자에 의해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내용을 만들 수 있고 후자에 의해 허무와 절망, 염세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주인공 형태와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인용문은 이 소설 전체가 가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이어지는 이 소설의 내용은 불안이란 근본 경험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비진정한 태도, 자기기만에 대한 사례의 實存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소설의, 비진정한 삶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중반까지, 곧 제1부에서의 중심인물은 동호다. 그

는 지나치게 결벽성이 강한, 퓨리틴적인 인간이다. 그는 군에 입대하기 전 연인 숙과 호텔의 한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나 애무만 할 뿐, 자기를 억제해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남자의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의 젊은 여성이라기보다 聖女처럼 생각하고 있다. 같은 부대의 그의 친구들은 수시로 창녀를 찾아가지만, 그녀를 가슴속에 두고 있는 그는 그런 행위를 짐승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혐오한다. 이 때의 동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超自我(super-ego)가 지배하는 인간이다. 超自我는 인간의 精神帶 중 도덕적 검열의 근원, 양심과 공지의 저장소로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완전, 결벽이다. 超自我가 과잉한 인간은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동물적 속성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면도 가진 것이 자연스런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연과 대립시키면 그는 평형점을 잃은 기괴한 구조물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관념론의 철학에서 인간의 육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차라리 제거되어야 마땅한 그 무엇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듯,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런 그는 군대 친구 현대에 끌려 부대 부근, 소토고미의 색주가에서 작부 옥주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옥주를 또 찾아가게 된다. 창녀를 찾는 동호는 id에 지배되는 인간이다. id는 강력한 성적 에너지(libido)의 저장소, 모든 인간 정신활동의 근원으로 쾌락원리에 따라 근원적 생명원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할 때 인간은 본능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가치·선악·관례·윤리·도덕과 같은 것은 무시한다. 이제 그는 超自我와 id의 상충으로 심한 내적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본능에 지배되는 자기와 동물적 욕망을 자제, 결벽의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기가 그의 내부에서 충돌한 것이다. 그는 옥주와 두 번째 관계를 가진 후, 그 술집에서 그녀가 부르던,

— 우리집 서방님은 고기잡이를 가았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달 열흘만 불
어라·

고 한 「제주도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바로 그와 같은, 그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속적으로 새기면 외간사내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바다에 나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어부의 처는 애인 숙이를 배신한 동호 자신이고 어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숙이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인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새겨들을 수 있다. 좋지 않은 행실을 하고 있는 어부의 처는 동호의 現實我, 現存在, 곧 있는 그대로의 동물적 인간으로 살려 하는 동호다. 그리고 어부는 순수, 순결한 인간으로 살려 하는 또 하나의 그다.

이 무렵에 꾸는 동호의 꿈도 위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되는 것이다.

그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빈 버스를 혼자 타고 있었다. 숙이를 만나러 인천으로 가는 길이었다. 운전수도 없는데 차가 저절로 굴러가고 있었다. 엔진소리가 귀가 멍멍하게 하고 낱아빠진 차체가 삐걱거리며 부분부분이 제각기 놀았다. 동호는 생각했다. 단지 어느 한 부분의 나사못 한 개가 이 차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나사못 하나만 빠지는 날이면 차체는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고 말 것이다. 거기 따라 자기도 핵 어디로든 뿌러질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이다. 그러는데 차가 내리받이를 만나 속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 中略 — 그런데 버스가 속력을 내어 달리고 있는 곳은 다른 곳 아닌 위험한 원테이고개 내리받이가 아닌가. 이 내리받이의 커브를 잘못 돌기만 하면 그대로 차체는 전복되고 마는 것이다. 동호는 고함을 쳤다. 원테이고개다, 원테이고개다.

黃順元 소설에 있어서의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나 운명의 예언으로 등장한다기보다 현재 그가 지니고 있는 의식의 간접적 표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⁴⁾ 이 경우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호가 꾸는 꿈속의 원테이고개는 본능에 끌려 살려 하는 거짓된 자기를 참 자기로 소환하는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그의 내적 갈등은 결국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어느 날 옥주를 찾아간 그는 그 술집의 한 방문 앞에서 그녀가 단골손님과 성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발작적으로 총을 쏘아 그녀를 죽이고 사내에게는 상처를 입힌다. 이 때 그가 총을 쏜 것은 질투심과는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다. 동호는 성교를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녀에게서 자기 자신의 추한 現存在를 본 것이다. 그러나

4) 김병익, 「순수 문학과 그 역사성」, 『黃順元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25~26쪽.

까 그에 의해 실제로 사살 당한 것은 술집 작부였지만 그것은 곧 추한 욕망의 자신을 죽인 것이다. 그 길로 부대로 돌아온 그는 이번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만다. 자살을 한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卽自性, 곧 자연성을 부정한 것이다. 인간은 성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의 진상이다. 인간이란 본래 그와 같은, 무의미하고 징그러운 존재성을 가진 것인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정면으로 응시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성격의 등장인물이지만, 그의 친구 현태가 그에게 한 말은 거기에 일면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동호는 작부와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는 후 마치 자신이 강간을 당한 기분을 느끼고 우울에 빠진다. 현태가 그런 그의 등의 쓸며 농담을 하자 그는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친다. 이 때 현태는,

“건드리지 마? 이 친구가 누구 본뽕 따느라구 이래? 하지만 등불을 꺼라
는 말은 말어. 카바이트 등불이면 몰라두 태양야 어떻게 할 수 없잖어?”

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본래 그렇게 던져진 존재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동호의 자살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던져져 있는(被投性)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고 거기서 자신을 본래적 자아로 만들어 가는 대신 절망에 빠져 그러한 자신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호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황폐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다고 하고 그는 전쟁의 파편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패배자는 아니라고 한 말은⁵⁾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호의 자살은 자기 자신의 부정이요 허무 끝에 다다른 패배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비진정한 삶의 두 번째 케이스는 생의 목표를 잃고 거품처럼 떠돌다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그 중 한 사람으로 부인물, 석기를 들 수 있다. 한때 미들급 권투선수였던, 건장한 청년 석기는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시력이 크게 약화된다. 휴전이 되고 제대를 한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시

5) 이태동, *op. cit.*, 78쪽.

면서 떠돌다 술집에서 무의미한 싸움을 벌인 끝에 칼에 찔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만다. 그의 시력 약화는 그가 세계, 인간에 대해 맹목이란 것을 상징하고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넘치는 힘을 헛되이 발산한 끝에 불구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보다 더한, 철저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인물이 이 소설의 주인공 현대다. 인간은 재래의 모든 가치가 부정된 세계에 서면 짐승과 같이 왜소해진 존재가 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 조야하고 악하며 본능만이 살아 있는 야수와 같이 되고 만다. 그러한 인간은 추악하고 야만적이다. 그와 같은 야성이 끝까지 창의적으로 제어되고 승화되지 않으면 그는 결국 바닥을 모를 허무로 추락하게 된다. 현대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전쟁 중 한 마을의 수색에서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한다. 수색대를 이끌고 있는 그는 그 여인이 적에게 그들의 동태와 같은 아군의 정보를 건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을에서 물러날 때 그녀를 중대본부로 데리고 와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성가스럽다 하여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일단 대원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물러난 그는 혼자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고 돌아온다. 그것만으로도, 아무리 전장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그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짐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단순한 살인 이상으로 잔혹한 것이다. 그는 먼저 그녀를 능욕한다. 그리고는 빈 마을에 남아 있기가 두려워 그에게 구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녀를, 충성을 내서는 안 된다 하여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그녀가 안고 있던 갓난아기도 결국 말라죽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중의 잔인한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가 한 행위는 實存主義에서 말하는, 「나」의 對自性を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다. 곧 타인을 나의 의식의 대상으로, 물체처럼 규정하여 지배하려 한 것이다. 이 때 그는 상대를 항거 불능 상태에 두고 폭력을 행사한다. 일견 그와 같은 대상의 물체화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기도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상대가 자기를 쳐다보자마자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창인 눈과 그것이 던지는 시선은 괴롭혀진 육체의 외면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남아도는 자유로운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他者 소유의 극단적인 시도가 현대가 자행한 것과

같은 살인이다. 그와 같은 살인자는 피해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피살자의 과거의 존재는 살인자의 머리 속에서 「영원한 현재의 존재」로 고정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던진 시선을 언제까지나 온몸으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⁶⁾

제대를 한 그는 그가 저지른 살인행위의 강박관념에 쫓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아버지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 어떤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것을 보고 머리 속에 자신이 죽인 여인과 아기를 떠올린다. 그 날 이후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이발도, 면도도 하지 않은 미치광이 모양을 하고 연일 술에 빠져 산다. 그는 극도의 무위와 권태감에 시달린다. 인간은 본래 이유없이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는 존재다. 권태감에 시달리는 인간은 부지런히 일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움으로써 거기서 도피할 수 있다. 권태는 창조적 활동성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권태감을 물리쳤을 경우 그것은 악도 질병도 아니다. 그러나 현태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계획도 하지 못한 채 과거에 갇혀 허덕이고 있다. 그의 삶에는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다. 實存主義에서는, 인간에게 영원히 의미 있게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또 現存在에게 영원히 의미 있는 목표도 없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양식의 결함이다. 인간은 여기서 허무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태는 現存在의 결함을 그대로 가진 채 무의지의 인간으로 떠돈다. 술과 담배, 섹스에 찌든 그는 끝없이 물 위에 뜬 거품처럼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다. 얼핏 보면 그는 상당히 용감하고 강인한 젊은이인 것 같다. 전장에서 쏟아지는 포탄 속을 헤쳐 나오고 적에게 포위 당했을 때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그렇고 소주병 뚜껑을 이빨로 따고 있는 데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한 인간의 한 전형이다. 본능과 타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는 자기를 기만하는 卽自存在다. 그는 내재적, 비본래적, 우발적 자아에 머물고 있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를 거부하고 초월적, 창조적, 미래 지향적인 자아 곧 對自存在가 되려 해야 한다. 그러나 현태는 「자신을 한 번

6) 鄭明煥, 「實存主義와 文學」, 『20世紀 이데올로기와 文學思想』, 鄭明煥 外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42~43쪽.

깨뜨려 버렸으면,」하다가도 『이 타성으로부터 헤어나기란 전쟁터에서 적의 포 위망을 뚫기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고 주저앉고 만다. 그는 가족의 권유로 미국행을 해 보려고도 한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악몽, 현재의 무위와 권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그 생각도 버리고 만다.

이 날 따라 현대에게는 이 술집에 앉아 있는 해리의 존재가 더 어색해 보였다. 그 크게 지어 보이는 웃음이나 술집 색시에게 응수하는 말투가 제 짝은 이 술집 분위기에 어울려 보려는 눈치였으나 그의 파아란 이국적인 눈동자에는 여전히 쓸쓸한 빛이 돌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현대는 자기가 외국엘 간다면 하고, 해리 같을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마 낮에 자기가 비행기만 타면 저들의 생활 속에 뛰어들 수고 있고, 지금의 이 무위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면 생각과는 또다른 심정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가도 그가 죽인 여인의 시선은 거기까지 따라올 것이며 어디로 가도 그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리고 그 쏘아보는 시선에서 해방되지 못 하는 한, 자신의 무위와 권태와 방향은 어디로 도피한다 해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함을 알게 된다. 여기서 그는 깊은 허무로 빠져 들어가고 만다. 그리고 그의 허무는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극복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그는 전우 동호의 애인을 강간하고 그가 상관한 적이 있는 계향을 죽게 해 간접살인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철저하게 파멸하게 된다.

그는 계향이 죽기 직전 그녀와 성행위를 하려 하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짓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陰痿는 생산, 창조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종말을 뜻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Ⅲ. 神도 인간도 없는 荒涼한 세상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비극적 인물은 선우상사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나 6·25사변 중 그 부모가 학살당한 이후 신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그가 술에 취해,

“암, 나두 전엔 아침저녁 빼놓지 았구 그런 기돌했지. …… 그런데 그 후에 난 이렇게 빌었어, 되레 날 불러가 달라구. …… 그렇지만 허사였어. 마침내 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아니 그렇게 믿기루 했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 넌 말하겠지. 하나님께서 날 더 시험하시는 거라구.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지? …… 그렇지만 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란 약한 거야. 거기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았다구 믿는 게 옳아. —下略—”

라고 한 말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부모의 참혹한 죽음을 본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박애가 모두 헛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죽음에서 가진 원한으로 한 부역자를 죽인다. 그 후 그는 그가 죽인 그 부역자, 物體化된 他者の 시선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그는 정신병을 앓는 폐인이 되고 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의 무신론적 實存主義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前略 — 옛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목시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현대의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았아.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야. 하나님이란 있는 것두 았니구 았는 것두 았니다, 다시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았다구 믿는 사람에겐 았구 았다구 생각하는 사람에게 았는 거다,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자유가 았다, 모든 게 사람에게 달렸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지배하는 건 았니다 이렇게 말야.”

위에 인용한 선우상사의 말 중 『모든 게 사람에게 달렸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지배하는 건 았니다』라고 한 대목은 처음부터 신은 존재하지도 았았다는 니체·카뮈·사르트르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고 았다고 할 수 았다.

또 이 소설에 등장하고 았는 인물들의 행장에서 우리는 實存主義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양태의 좋은 표본을 볼 수 았다. 등장인물들은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았다. 동호는 작부를 살해하고 숙에게 평생 지울 수 았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가장 심한 경우가 현대로 그는 친구 동호를 타락의 길로 끌어들여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그의 애인 숙을 강간한다.⁷⁾

그리고 그는 술집에 있다 하나 아직 남자의 몸을 모르는 계항을 돈으로 사 짓밟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작가는 이 소설의 나레이터의 입을 통해,

인간관계 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처라는 걸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크고 작고 심하고 덜한 차이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의 다름은 있을망정 서로 어떤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서는 무릇 인간관계란 성립되지부터 앓는 성싶다. 그것이 친구간이든 남녀간이든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이런 상처 속에서도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망각하기에 애쓰고 또한 거기에 익숙해진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해 이 소설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實存主義에서 말하는 이른바 생명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비탈'을 '전략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한 글이 있는데⁸⁾ 확실히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은 각각의 이유, 계기로 전략하고 있다. 전우들 중 단 한 사람, 윤구는 죽지 않고, 불구가 되지 않고, 감옥으로 가지 않고, 미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태동은 그가 황무지를 개척해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흰 병아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설 땅을 마련한 사람, 의미 없는 전쟁의 깊은 상처를 치절한 인간의지로써 극복한 사람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⁹⁾ 한편 千二斗는 그를 그와 전혀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는 윤구가 계산과 공리 위에서만 일체의 가치를 산출하는 비정적 機巧의 인간이라고 하고 있다.¹⁰⁾ 필자는 千二斗의 견해가 동의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철저한

7) 그러므로 동호와 현대 사이가 두터운 우정을 가진 것이라고 한, 송상일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송상일, 『순수와 초월』, 『黃順元全集』 7(文學과 知性社, 1999), 399쪽.

8) 조남현, 『『나무들 비탈에 서다』, 그 외연과 내포』, 『黃順元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141쪽.

9) 이태동, *op. cit.*, 83쪽.

10) 千二斗,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起點(上)』, 『현대문학』(현대문학사, 1961년 12월호), 200쪽.

계산으로 살아가는 이기의 인간이요 비정하고 비겁한 인간이다. 그는 애인 미란이 임신을 하자 그것이 친구 현대의 씨인지도 모른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으로 낙태를 하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부모의 반대로 당장 결혼이 어려우니 같이 동거라도 하자고 하나 말썹에 휩쓸릴 것이 겁나 이에 반대한다. 결국 그녀는 소문이 겁난다 하여 산부인과도 아닌 허술한 내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데 경과가 나빠 죽고 만다. 그런데도 그는 『죽은 미란은 미란이요 자기는 자기』라면서 자신이 치고 있는 닭이 병들지 않을까만 걱정하고 있다. 그는 또 현대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어 오갈 데가 없어진 숙이 자신을 찾아와 얼마 동안이라도 그의 양계장에서 기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말썹스런 일이 생길까 두렵다면서 냉랭하게 거절하고 있다. 일견 한 사람의 자립, 자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구 또한 非人이요 불구적 인간이다.

이상에서 보면 이 소설은 허무와 절망과 비관주의로 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實存主義의인 시선으로 볼 때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긍정적인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술집, 평양집의 계향이다. 그는 그 술집 여주인의 강요에 못 이겨 현대에게 처녀성을 빼앗긴다. 여주인은 다시 매질까지 해 가면서 그녀에게 50대 술손님에의 매움을 강요한다. 결국 그녀는 현대가 준 칼로 자살을 하고 만다. 그녀는 산다는 일의 고통스러움의 무의미함에서 不條理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간 가치를 지킨 것이다.¹¹⁾ 그러므로 그녀의 죽음은 그녀를 제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호출한 권위이다.¹²⁾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인간 긍정, 세계 긍정의 빛을 던져 주고 있는 사람은 숙이다. 그녀는 현대의 발광한 야수와 같은 짓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집에도 있을 수 없게 된 그녀는 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배속의 태아를 지우면 우선 자신의 삶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이 『마지막까지 감

11) 이태동, *op. cit.*, 83쪽.

12) 曹街京, 『實存哲學』(博英社, 1991), 142쪽.

당」하러 한다. 조남현은 이 소설의 제목 중 ‘나무’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지하에 뿌리를, 하늘에 가지를 두고 있는 나무는 천상과 지상, 지하 세계에 고루 관계를 맺어 ‘다른 세계와 힘들을 결합시키고 있는 중심 축’이라고 하고 있다.¹³⁾ 마지막 장면에서의 숙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나무’다. 숙의 결심은 강인한 인간의, 고갈되지 않는 생명력, 부단한 소생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희망을 거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결말을 갑작스런 것이라고 한 말은¹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황폐하고 황량한 전후의 한국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랑이라고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한 편의 특이하고 미학적 우수성이 돋보이는 實存主義小說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IV. 結論

黃順元의 대표 장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한 편의 실존주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부조리한 인간조건, 불안이라는 실존적 근본 경험에서 인간이 허무와 절망, 염세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부정적 반응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주요 부인물 동호는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속성도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다가 절망 끝에 자살을 하고 있다.

둘째, 또 한 사람의 부인물 석기는 實存人으로서의 생의 지향점을 잃고 방황을 거듭한 끝에 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셋째, 또 다른 한 사람의 등장인물 윤구는 철저한 체己에 머물러 비정한 삶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3) 조남현, *op. cit.*, 143~144쪽.

14) 김만수, 「황순원의 초기 장편소설 연구」, 『1960년대 문학 연구』,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編 (예하, 1993), 101쪽.

넷째, 주인공 현태는 동물적 야성, 본능에 따라 살다 자기파탄에 이르고 있는 인물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소설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젖은 패배자의 미학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나 강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숙이 자기 앞의 비극적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 그 위험이 극복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한 편의 예술성과 사상성이 뛰어난 實存主義 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實存, 虛無, 不安, 轉落

참고문헌

-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顯現)」, 『黃順元全集』 12, 文學과 知性社, 1993, 68쪽.
- 이보영, 「작가로서의 황순원」, 『黃順元全集』 12, 文學과 知性社, 1993, 294쪽.
- 김병익, 「순수 문학과 그 역사성」, 『黃順元全集』 12, 文學과 知性社, 1993, 25~26쪽.
- 鄭明煥, 「實存主義와 文學」, 『20世紀 이데올로기와 文學思想』, 鄭明煥 外, 서울 大學校 出版部, 1982, 42~43쪽.
- 송상일, 「순수와 초월」, 『黃順元全集』 7, 文學과 知性社, 1999, 399쪽.
- 조남현, 「『나무들 비탈에 서다』, 그 외연과 내포」, 『黃順元全集』 12, 文學과 知性社, 1993, 141쪽.
- 千二斗,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起點(上)」,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1년 12월호, 200쪽.
- 曹街京, 『實存哲學』 博英社, 1991, 142쪽.
- 김만수, 「황순원의 초기 장편소설 연구」, 『1960년대 문학 연구』,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編, 예하, 1993, 101쪽.

<Abstract>

The Existential Characteristics of Hwang Soon-won's Novel, *Trees Stand on the Hill*

Chang, Yang-Soo

It seems that *Trees Stand on the Hill*, one of the Hwang Soonwon's representative novels can be categorized into existential novels. It is because the novel shows an absurd human condition, nihilism, despair from the radical experience of anxiety, and the character's submergence into pessimism. The examples are shown in the following negative reactions to the society.

First, an important minor character, Dongho committed a suicide, denying the attribution of animals in human beings.

Second, another minor character, Sukki is submerged into a failure, disoriented in life as an existence,

Third, the other character, Yoongoo shows the cruel type in his own selfishness.

Fourth, the hero of the novel, Hyuntae came to the self-destruction, living a life by the wildlife and the instinct.

For those reasons the novel almost comes to an end, showing the defeated aesthetics of the characters on the basis of nihilism and pessimism. However a woman character, Sukyi tried to show her own will to live, even though she was adulterated and casted by the surrounding characters. We can find a light of hope for salvating humans in the novel.

We can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novel, *Trees Stand on the Hill* can be categorized into the existential novel with high artistry and idealism.

Key Words : existentialism, nihilism, anxiety, submergence